무명이 홀연히 나타나 진여 물들여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㉜ 본래 자성과 훈습(薰習)

〈원문〉 승만 부인이 이렇게 알기 어려운 법을 말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하니라. 성품이 깨끗한 마음(自性淸淨心)에 물이 든다는 것은 알기 어려우니라. 두 가지 법이 알기 어려운 것이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려우며, 그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도 알기 어려우니라. 이 두 가지 법은 너와 큰 법을 성취한 보살마하살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성문들은 다만 부처의 말씀을 믿을 뿐이니라."

〈강설〉 지금까지 승만 부인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승만 부인을 칭찬하시고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려운 것이며,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것도 알기 어렵다고 하신다. 이 알기 어려운 두 가지는 대승의 보살들만 알 수 있고 성문들은 다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겨 믿을 뿐이라 하였다.

본래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어째서 번뇌에 물들게 되는 걸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의문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다. 다시 말해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면 어째서 중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답하는 말로 훈습(薰習)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본래 입던 새 옷이 입다 보면 때가 끼듯이 깨끗했던 것이 오염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종합 개론서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에서는 네 가지 훈습을 말하는데, 부처가 중생이 될 때는 무명훈습(無明薰習)이 일어나고 중생이 부처가 될 때는 진여훈습(眞如薰習)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진여와 무명이 서로 훈습을 한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추가적 훈습이 또 있어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면 향기와 악취의 두 가지 냄새가 있을 때 향기가 강하면 악취를 이기고 악취가 강하면 향기를 이기는 것처럼 우성(優性)이 열성(劣性)을 훈습한다는 논리를 전개 하였다. 진여에 의해서 무명이 훈습되면 무명에 없던 정법(淨法)이 있게 되고 무명에 의해 진여가 훈습되면 진여에 없던 염법(染法)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진여의 법은 참되고 한결같은 정법(淨法)이다. 여기에 무명이 홀연히 나타나 진여를 물들여 오염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염법(染法)을 유발시킨다. 그리하여 업식(業識)이 형성되어 이것이 다시 무명에 훈습을 가한다. 그 결과 진여의 마음이 실종되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잘못 의식되는 객관세계에 잡다한 현상들을 야기(惹起)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릇되게 의식된 객관 대상세계의 잡다한 현상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훈습이 또 일어나며 그로 인해 집착이 일어나고 온갖 업행(業行)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업식훈습과 경계훈습이 더해져 네 가지 훈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자성청정심인 여래장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이 염법 훈습으로 무명에 의해서 진여가 훈습되는 것이다. 왜 이런 훈습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알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여래장 자체가 불가사의하다고도 말했다. 여기에는 여래장인 진여는 훈습되지 않는 것인데 훈습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어나 파도가 움직인다.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날 때 바람이 파도의 원인이지만 이 바람의 원인은 소급해 말하지 않고 그냥 "홀연히"라고 말한다. 홀연히 바람이 일어나는 게 불가사의하고 움직이지 않던 물이 파도가 되어 일어나는 게 불가사의하다는 말이다.

무명을 무시무명(無始無明)이라고 하는 것도 무명의 출발은 시작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에도 '홀연히'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깨닫지 못한 불각(不覺)의 상태를 〈기신론〉에서는 여실히 진여법(眞如法)이 하나(一)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하여 이 불각심이 움직여서 망념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동서남북의 방향을 모르는 미혹한 사람이 본래의 정방(正方)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迷惑)이 생긴다고 하였다.

〈승만경〉에도 여래장연기설의 일단이 설해져 있다. 〈승만경〉의 중요한 내용이 여래장설로, 이는 여래장에 의지하여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아뢰야식설을 통합시켜 나온 것이 여래장연기설이다. 〈승만경〉, 〈능가경〉, 〈밀엄경〉 등과 〈기신론〉, 〈보성론〉 등에서 설해진 설로 화엄종의 현수도 이 설을 내세웠으며 교판상으로는 대승종교(大乘終敎)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반야바라밀 실천으로 전도몽상 깨뜨려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관세음보살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삼라만상 모든 현상계와 온갖 마음의 세계 모두가 공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실상반야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모두 공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야(般若)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입니다. 일체의 분별과 분석을 초월한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실상반야를 일러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본주의적(神本主義的)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전생의 업(業)에 의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숙명론적(宿命論的)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저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우연론적(偶然論的)견해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견들은 모두가 전도몽상(顚倒夢想)된 마음에서 나오는 삿된 견해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이 걸림이 없게 되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에 전도몽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게 되느니라."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말씀처럼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어리석고 어두운 전도몽상(顚倒夢想)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도몽상의 마음을 깨뜨리고 반야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걸림 없는 마음의 대자유를 얻어 영원한 행복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도 우리들의 전도몽상된 마음을 깨뜨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묘법연화경〉 '방편품제2'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옵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開) 맑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자(示)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우쳐(悟) 주시고자 하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도록(入)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느니라."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들의 전도몽상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중생들이 전도몽상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入] 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해 큰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큰 믿음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涅槃)의 행복한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설한 것입니다.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믿음은 도(道)이며, 진리이며. 실상입니다. 인간세계를 정화시키며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㉜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 ①

질문 사라지면 空을 알게 된 것

"수행승들이여, 대부분 뭇 삶은 이와 같이 욕망하고, 이와 같이 욕구하고, 이와 같이 의도하고 있다. '아, 참으로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대부분 뭇 삶은 이와 같이 욕망하고, 이와 같이 욕구하고, 이와 같이 의도하더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

한 수행승이 운문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운문선사는 "마른 똥막대기이니라"라고 하셨다. 뭇 삶은 항상 '지금보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선다. 수행을 하든 바깥의 삶을 살든 똑같이 찾아 나선다. 더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뭇 삶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구하며 헤맨다. 운문 선사는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질문에 '똥막대기'라고 대답했다. 뭇 삶은 운문 선사의 대답에 초점을 두고 '왜'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의 질문으로 초점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두고 묻는 물음이다. 하지만 그 전제라는 것이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알고 묻지 못한다. 만약 전체를 알고 묻는다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체의 그림을 보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없을 것이고, 부분만 알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뭇 삶은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각인되어 있다. 그럼 어디까지가 배움의 끝일까? 배움의 끝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마 배움의 끝은 없을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아간다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서 옆으로 땅을 파는 격이기 때문이다. 우물은 제자리에서 아래로 파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옆으로 파면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힘만 들뿐 물은 나오지 않는다.

완전함은 질문이 사라져버린,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면 찾아 나설 리 없고, 자연스레 찾아 나서는 자와 이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 텅 빈 것에 대한 앎이다. 그 후에는 차차 허상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오온을 '나'라고 알고 살아온 습(習) 때문에, 번민의 그림자가 조금 남아 있다. 번민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번민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번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수행은 대상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출가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심(下心)이다. 마음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존중한다는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존중하는 마음은 대상을 죽이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우쭐하고, 불필요한 것을 취하고, 탐하고, 성내고, 이간질하고,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하심은 번민을 많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마음이 생겨나면 수행은 먼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어온 것에 대한 참회로써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참회는 대상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몸, '나'라는 입, '나'라는 생각에 대한 참회이다. 내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대상에 대한 번민을 만든다. 내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심도 참회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이다.

고요히 앉아 움직임을 본다.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임처럼 보인다.
따라가는 자, 내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 움직임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